

# 中國語에 있어서의 ‘말하다’ 따위의 類義動詞에 대한 연구

허 성 도

## 1. 머리 말

1.0. 중국어 동사 ‘說, 講, 談, 告訴’는 모두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하나의 類義語群에 속하게 되는데 이들을 유의동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국어에 있어서의 유의동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이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의 설정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작성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說, 講, 談, 告訴’가 갖는 유사점과 상이점을 밝혀 보려는 목적과 이를 위하여 설정된 방법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묻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 셈이다.

‘說, 講, 談, 告訴’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들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어사용자가 가지고 있을 ‘說, 講, 談, 告訴’에 대한 감각이 필자에게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감각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說, 講, 談, 告訴’의 통사적인 유사점과 상이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통사적 차이는 곧 가시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들 유의동사 사이에 존재하는 일차적인 상이점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 ‘說, 講, 談, 告訴’와 주어

2.1. 원칙적으로는 인간만이 말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 (1) 他說~
- (2) 他講~
- (3) 他談~
- (4) 他告訴我們~

(1~4)는 ‘說, 講, 談, 告訴’가 모두 [+Human]을 주어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4)는 주어가 모두 인칭대명사이지만 이 자리에 사람을 표시하는 일반명사, 즉 ‘學生們’이나 ‘農夫們’ 등이 와도 성립되며, 사람을 표시하는 고유명사가 와도 물론 성립된다. 그러나 [+Concrete]가 오는 경우의 양상은 이와는 다르다. 다음을 보자.

- (5) a. 學校當局給我們說~
- b. 報上給我們說~
- c. 書裏給我們說~
- d. 天氣豫報給我們說~
- (6) a. \*學校當局給我們講~
- b. \*報上給我們講~
- c. \*書裏給我們講~
- d. \*天氣豫報給我們講~
- (7) a. \*學校當局給我們談~
- b. \*報上給我們談~
- c. \*書裏給我們談~
- d. \*天氣豫報給我們談~
- (8) a. 學校當局告訴我們~
- b. 報上告訴我們~
- c. 書裏告訴我~
- d. 天氣豫報告訴我們~

(5~8)은 [+Concrete]를 주어로 하는 경우인데 (5)와 (8)만이 성립한다. 이는 곧 ‘說, 告訴’만이 [+Concrete]를 주어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 주어가 [+Abstract]인 경우를 보기로 하자.

- (9) a. 他的眼睛已經給我們說~
- b. 這種現象給我們說~
- (10) a. \*他的眼睛已經給我們講~
- b. \*這種現象給我們講~
- (11) a. \*他的眼睛已經給我們談~
- b. \*這種現象給我們談~
- (12) a. 他的眼睛已經告訴我們~
- b. 這種現象告訴我們~

여기에서도 (9)와 (12)가 성립하며, (10~11)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說’와 ‘告訴’만이 [+Abstract]를 주어로 취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보자.

- (13) a. 心裏說~  
 b. \*心裏講~  
 c. \*心裏說~  
 d. \*心裏告訴~

(13b, c)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위의 설명으로 명백해지지만 (13d)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告訴’가 [+Abstract]를 주어로 취할 수 있다는 위의 설명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주어에 대한 ‘告訴’의 특별한 선택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언급은 곧 ‘告訴’가 ‘說, 講, 談’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 작용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지 않았으나, ‘告訴’가 말한다는 사실만을 지시할 뿐 말하는 동작 자체는 지시할 수 없는 동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告訴’는 동작의 시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告訴’의 의미론적 특성이 파악된 이후에야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2.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14) 가격으로 말하면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15) 인품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가 적합하다고 한다.

(14~15)의 ‘말하다’의 주어는 ‘적합하다’고 말한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나 ‘적합하다’의 주어는 출현이 가능하지만 ‘말하다’의 주어는 출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16) a. 가격으로 말하면 그는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b. 그는 가격으로 말하면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c. 그는 “가격으로 말하면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d. 가격으로 말하면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그는 말한다.  
 e. “가격으로 말하면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그는 말한다.  
 f. \*그는 가격으로 말하면 그는 저 물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16a)의 ‘그’는 ‘말하다’의 주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합하다고 한다’의 주어위치에 놓여 있으며, (16b)의 ‘그’는 위치상으로는 ‘말하다’의 주어인 듯이 보이나 사실상 (16c)와 동일한 형태로 생각된다. (16d)는 ‘그’를 후치시킨 경우인데 이것도 또한 (16e)와 동일한 형태로 생각된다. (16f)는 ‘말하다’만의 주어를 갖게 한 것이나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이러한 경우에 ‘말하다’ 만의 주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국어에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있다.

- (17) a. 講價格, 這個東西最好.  
b. 講人格, 這個人最好.

(17)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러나 ‘說, 談, 告訴’는 이와 같은 형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 (18) a. \*說價格, 這個東西最好.  
b. \*說人格, 這個人最好.  
(19) a. \*談價格, 這個東西最好.  
b. \*談人格, 這個人最好.  
(20) a. \*告訴價格, 這個東西最好.  
b. \*告訴人格, 這個人最好.

### 3. ‘說, 講, 談, 告訴’와 賓語

여기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主謂構造, 반복의문형, 의문사가 ‘說, 講, 談, 告訴’의 賓語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 3.1. 명사는 ‘說, 講, 談, 告訴’의 賓語가 될 수 있다.

- (21) a. 他說實話.  
b. 他講真話.  
c. 他談天氣.  
d. 他告訴我那件事.

(21)은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說, 講, 談, 告訴’가 각각 어떠한 내용의 명사를 취하는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들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병행되어야 할 작업이므로 앞에 말한 바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3.2. ‘說, 講, 談, 告訴’는 모두 主謂構造를 賓語로 취할 수 있다.

- (22) 母親說他要來.  
(23) 母親講他要來.  
(24) 母親給他談了最近的生意不錯.  
(25) 母親告訴我他要來.

여기에서 主謂構造의 주어 부분의 생략이 가능한가를 알아 보자.

- (26) 母親說要來.  
 (27) 母親講要來.  
 (28)\*母親給他談不錯.  
 (29) 母親告訴我來來.

(28)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22)와 (26)의 의미가 같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즉 (22)의 ‘要來’의 주어는 ‘他’일 수밖에 없지만 (26)의 ‘要來’의 주어는 ‘他’, 혹은 ‘母親’이 된다. (27)의 경우도 이와 같다. (29)의 ‘要來’의 주어는 ‘他’와 함께 ‘母親’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我’일 수도 있다.

3.3. ‘說, 講, 談, 告訴’가 동사와 형용사를 賓語로 취하는 경우를 알아보기로 하자.

- (30) 他說買.  
 (31) 他告訴我買.

(30~31)은 “그는 산다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 (32) \*他講買.  
 (33) \*他談買.

이러한 현상은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34) 他說冷.  
 (35)\*他講冷.  
 (36)\*他談冷.  
 (37) 他告訴我冷.

(34)와 (37)은 성립하지만 (35~36)은 비문이다. 이상은 ‘說, 告訴’만이 동사와 형용사를 賓語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반복의 문문이 나오는 경우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다.

- (38) 他說來不來?  
 (39)\*他講來不來?  
 (40)\*他談來不來?  
 (41) 他告訴你來不來?

(38~41)은 동사가 반복된 반복의 문문이다. (38)과 (41)이 성립하고 (39~

40)이 비문인 것은 (30~33)의 경우로 보아 당연하다. (42~45)의 경우도 이와 같다.

- (42) 他說冷不冷?
- (43)\*他講冷不冷?
- (44)\*他說冷不冷?
- (45) 他告訴你冷不冷?

### 3.4. ‘說, 講, 談, 告訴’와 명령형

동사의 반복에 의한 명령형은 단음절 동사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告訴’는 이와 같은 명령형을 취할 수 없다.

- (46) a. 說(一)說!
- b. 講(一)講!
- c. 談(一)談!
- d. \*告訴(一)告訴!

### 3.5. ‘說, 講, 談, 告訴’와 피동형

여기에서는 ‘說, 講, 談, 告訴’가 사용된 문이 피동형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 (47) 他說完了我要說的話.
- (48) 他講完了這事情的經過.
- (49) 他談完了這事情的經過.
- (50) 他告訴我這事情的經過了.

(47~50)을 피동형으로 바꾼 것이 (51~54)이다.

- (51) 我要說的話被他說完了.
- (52) 這事情的經過被他講完了.
- (53) 這事情的經過被他談完了.
- (54)\*這事情的經過被他告訴我了.

(51~53)은 성립하지만 (54)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告訴’가 피동문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4. ‘說, 講, 談, 告訴’와 間接賓語

‘說, 講, 談, 告訴’는 의미상 모두가 間接賓語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間接賓語를 취하는 양상은 서로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이

들 동사의 間接賓語가 介詞를 동반하지 않고도 나타나는가의 여부, 그리고 介詞의 동반이 필수적이라면 어떠한 介詞를 동반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4.1. ‘說, 講, 談, 告訴’가 介詞의 소개 없이 間接賓語를 취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 (55) 我說他那件事了.
- (56)\*我講他那件事了.
- (57)\*我談他天氣了.
- (58) 我告訴他那件事了.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와 (58)은 성립하나 (56~57)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곧 ‘說’와 ‘告訴’만이 介詞의 동반 없이 間接賓語를 취할 수 있으며, ‘講’과 ‘談’은 間接賓語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介詞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4.2. ‘說, 講, 談, 告訴’가 동반할 수 있는 介詞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 (59) 我跟他說那件事了.
- (60) 我跟他講那件事了.
- (61) 我跟他談天氣了.
- (62)\*我跟他告訴那件事了.

이상은 ‘說, 講, 談, 告訴’가 間接賓語를 취하는 경우에 介詞 ‘跟’을 동반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59~61)은 성립하나 (62)는 성립하지 않는다.

- (63) 我給他說那件事了.
- (64) 我給他講那件事了.
- (65) 我給他談天氣了.
- (66)\*我給他告訴那件事了.

이상은 ‘說, 講, 談, 告訴’가 間接賓語를 취하는 경우에 介詞 ‘給’을 동반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63~65)는 성립하나 (66)은 성립하지 않는다.

- (67) 我向他說那件事了.
- (68) 我向他講那件事了.

(69) \*我向他談天氣了.

(70) \*我向他告訴那件事了.

이상은 ‘說, 講, 談, 告訴’가 間接賓語를 취하는 경우에 介詞 ‘向’을 동반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67~68)은 성립하나 (69~70)은 성립하지 않는다.

(71) 我對他說那件事了.

(72) 我對他講那件事了.

(73) 我對他談天氣了.

(74)\*我對他告訴那件事了.

이상은 ‘說, 講, 談, 告訴’가 間接賓語를 취하는 경우에 介詞 ‘對’을 동반하는가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71~73)은 성립하나 (74)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說’는 介詞의 소개 없이 間接賓語를 취할 수 있고 介詞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跟, 給, 向, 對’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둘째, ‘講’은 반드시 ‘跟, 給, 向, 對’와 같은 介詞의 소개에 의해서만 間接賓語를 취할 수 있다.

셋째, ‘談’도 반드시 介詞의 소개에 의해서만 間接賓語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講’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跟, 給, 對’를 동반할 수 있을 뿐 ‘向’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네째, ‘告訴’는 間接賓語를 취함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介詞의 동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5. ‘說, 講, 談, 告訴’와 補語

‘說, 講, 談, 告訴’가 結果補語, 程度補語, 方向補語, 可能補語, 回數補語, 時間補語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 5.1. ‘說, 講, 談, 告訴’와 結果補語와의 결합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75) a. 他把這件事說完了.

b. 他把這件事講完了.

c. 他把這件事談完了.

d. \*他把這件事告訴完了我了.

(76) a. 他把這件事說好了.

b. 他把這件事講好了.



- c. 他把這件事談好了.  
 d. \*他把這件事告訴好了我了.
- (77) a. 他把那件事說對了嗎?  
 b. 他把那件事講對了嗎?  
 c. ?他把那件事談對了嗎?  
 d. \*他把那件事告訴對了我了嗎?
- (78) a. 他把那件事說清楚了.  
 b. 他把那件事講清楚了.  
 c. 他把那件事談清楚了.  
 d. \*他把那件事告訴清楚我了.

(75~78)은 ‘說, 講, 談’이 모두 結果補語를 취할 수 있는 반면 ‘告訴’는 結果補語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晚, 錯’과 같은 특수한 結果補語는 ‘告訴’의 다음에 올 수 있다.

- (79) a. 他把那件事說晚了.  
 b. 他把那件事講晚了.  
 c. 他把那件事談晚了.  
 d. 他把那件事告訴晚了我了.
- (80) a. 他把那件事說錯了.  
 b. 他把那件事講錯了.  
 c. 他把那件事談錯了.  
 d. 他把那件事告訴錯了我了.

3.2. ‘說, 講, 談, 告訴’와 程度補語와의 결합關係를 알아보기로 하자.

- (81) a. 他說英文說得非常清楚.  
 b. 他講英文講得非常清楚.  
 c. 他把這件事談得非常清楚.  
 d. \*他把這件事告訴得非常清楚我.
- (82) a. 他把那件事說得非常高興.  
 b. 他把那件事講得非常高興.  
 c. 他把那件事談得非常高興.  
 d. \*他把那件事告訴得非常高興我.

(81~82)는 ‘說, 講, 談, 告訴’와 程度補語 ‘清楚, 高興’과의 結合關係를 알아 본 것이다. 이 결과는 ‘說, 講, 談’이 모두 程度補語 ‘清楚, 高興’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 ‘告訴’는 이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說, 講, 談, 告訴’와 方向補語와의 결합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 (83) a. 請繼續說下去!  
 b. 請繼續講下去!  
 c. 請繼續談下去!  
 d. \*請繼續告訴下去!
- (84) a. 請繼續說下來!  
 b. 請繼續講下來!  
 c. 請繼續談下來!  
 d. \*請繼續告訴下來!

(83~84)는 ‘說, 講, 談, 告訴’와 方向補語 ‘下去, 下來’와의 결합관계를 알아 본 것이다. 이 결과는 ‘說, 講, 談’가 모두 方向補語 ‘下去, 下來’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告訴’는 이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說, 講, 談, 告訴’와 可能補語와의 결합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 (85) a. 這個問題我說不清楚.  
 b. 這個問題我講不清楚.  
 c. 這個問題我談不清楚.  
 d. \*這個問題我告訴不清楚.
- (86) a. 那個問題我說不明白.  
 b. 那個問題我講不明白.  
 c. 那個問題我談不明白.  
 d. \*那個問題我告訴不明白.

(85~86)은 ‘說, 講, 談, 告訴’와 可能補語 ‘清楚, 明白’와의 결합관계를 알아 본 것이다. 이 결과는 ‘說, 講, 談’이 모두 可能補語 ‘清楚, 明白’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告訴’는 이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說, 講, 談, 告訴’와 回數補語와의 결합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 (87) a. 請再說一下!  
 b. 請再講一下!  
 c. 請再談一下!  
 d. 請再告訴我一下!
- (88) a. 請再說一遍!  
 b. 請再講一遍!  
 c. 請再談一遍!

## d. 請再告訴我一遍!

(87~88)은 ‘說, 講, 談, 告訴’의 回數補語 ‘一下, 一遍’과의 結合關係를 알아본 것이다. 이 결과는 ‘說, 講, 談, 告訴’가 모두 回數補語 ‘一下, 一遍’과 結合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5.6. ‘說, 講, 談, 告訴’의 時間補語와의 結合關係를 알아보기로 하자.

- (89) a. 他已經說了半天了.  
 b. 他已經講了半天了.  
 c. 他已經談了半天了.  
 d. \*他已經告訴我了半天了.
- (90) a. 他已經說了兩個鐘頭了.  
 b. 他已經講了兩個鐘頭了.  
 c. 他已經談了兩個鐘頭了.  
 d. \*他已經告訴我了兩個鐘頭了.

(89~90)은 ‘說, 講, 談, 告訴’의 時間補語 ‘半天, 兩個鐘頭’와의 結合關係를 알아본 것이다. 이 결과는 ‘說, 講, 談’이 모두 時間補語 ‘半天, 兩個鐘頭’와 結合할 수 있는 반면 ‘告訴’는 이들과 結合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說, 講, 談, 告訴’와 動態助詞

‘說, 講, 談, 告訴’와 動態助詞 ‘了, 着, 過’와의 結合關係를 알아 보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 (91) a. 他說了幾句話, 就回家了.  
 b. 他講了幾句話, 就回家了.  
 c. 他談了幾句話, 就回家了.  
 d. 他告訴了我幾句話, 就回家了.
- (92) a. 他已經說過這件事了.  
 b. 他已經講過這件事了.  
 c. 他已經談過這件事了.  
 d. 他已經告訴過我這件事了.

(91~92)는 모두 성립한다. 이는 ‘說, 講, 談, 告訴’가 모두 ‘了, 過’와 結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 (93) a. 他每次說着笑.  
 b. 他每次講着笑.

c. 他每次談着笑.

d. \*他每次告訴着笑.

‘告訴’와 ‘着’가 결합한 (93d)는 성립하지 않는다.

7. 맺음 말

지금까지 ‘說, 講, 談, 告訴’가 통사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說	講	談	告訴
주어	[Human]	+	+	+	+
	[Abstract]	+	-	-	±
	[Concrete]	+	-	-	±
무주어	-	+	-	-	
賓語	명사	+	+	+	+
	주위구조	+	+	+	+
	동사	+	-	-	-
	형용사	+	-	-	-
	반복의문형	+	-	-	+
반복명령형	+	+	+	-	
외동형	+	+	+	-	
間接賓語	ϕ 介詞	+	-	-	+
	跟給	+	+	+	-
	向對	+	+	+	-
	向對	+	+	-	-
	向對	+	+	+	-
補語	結果補語	+	+	+	±
	程度補語	+	+	+	-
	方向補語	+	+	+	-
	可能補語	+	+	+	-
	回數補語	+	+	+	+
	時間補語	+	+	+	-
動態助詞	了	+	+	+	+
	着	+	±	+	-
	過	+	+	+	+

위의 도표는 가장 기본적인 ‘說, 講, 談, 告訴’의 통사적인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賓語의 형태에서의 主謂構造 및 동사, 형용사의 부분은 근본적으로 중국어의 화법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화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보다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화법에 대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둘째, 補語부분은 필자가 임의로 선택한 補語를 중심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되지 아니한 補語의 경우에는 異論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각각의 補語에 대한 기능이 연구되고, 또한 ‘說, 講, 談, 告訴’의 의미론적 연구가 진행된 후에, 補語의 기능과 이들 동사 사이의 의미상의 연결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說, 講, 談, 告訴’의 통사적인 차이를 결론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類義動詞의 통사적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의 제시에 그쳤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Synonyms *shuo* 說, *jiang* 講, *tan* 談, *gao su* 告訴 in the Chinese Verb

Heo, Seong Do

This paper aims (a) to take a new look at usages of Chinese verb *shuo* (說), *jiang*(講), *tan*(談), *gaosu*(告訴), (b) to point out some differences in them from a standpoint of syntax.

The result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說 <i>shuo</i>	講 <i>jiang</i>	談 <i>tan</i>	<i>gaosu</i> 告訴
sub.	[Human]	+	+	+	+
	[Abstract]	+	-	-	±
	[Concrete]	+	-	-	±
∅ sub.		-	+	-	-
object	noun	+	+	+	+
	s+p	+	+	+	+
	verb	+	-	-	-
	adjective	+	-	-	-
	v-not-v	+	-	-	+

v-v imperative		+	+	+	-
passive		+	+	+	-
coverb	φ coverb	+	-	-	+
	gen 跟	+	+	+	-
	gei 給	+	+	+	-
	xiang 向	+	+	-	-
	dui 對	+	+	+	-
complement	result	+	+	+	±
	degree	+	+	+	-
	direction	+	+	+	-
	possibility	+	+	+	-
	times	+	+	+	+
	duration	+	+	+	-
aspect	le 了	+	+	+	+
	zhe 着	+	+	+	-
	guo 過	+	+	+	+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접수: 1987. 1. 28)